[UCI]I804:24011-200000235878

Herzog의 성격에 관한 오이디푸스적 접근

- Oedipal Approach to Herzog's character in *Herzog* -

2008年 2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임 혜 영

Herzog의 성격에 관한 오이디푸스적 접근

지 도 교 수 홍 성 용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年 10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임 혜 영

임혜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Ⅱ

I. 서 론 1

II. Herzog의 성격분석..... 5

A. Herzog와 Madeleine의 불화요인..... 5

B. Herzog의 피학대음란적 요소..... 11

C. Herzog의 오이디푸스적 강박관념..... 23

III. 결 론..... 31

참 고 문 헌..... 33

<ABSTRACT>

*Herzog*의 성격에 관한 오이디푸스적 접근

- A Study on Oedipal Approach to Herzog's Personalities in *Herzog* -

Lim, Hye-young

Advisor : Prof. Hong, Sung-yong,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is to discuss oedipal approach to Herzog's personalities in *Herzog.* Saul Bellow is one of the most intellectual Jewish writers in American literature and won the Novel Prize in literature in 1976. Most of Bellow's novels reveal his male angel of binary oppositions between men and women. And because Bellow focuses on a well-defined male protagonist, it is only natural that most critical evaluations of his works concentrate on that character. Critics still do not adequately acknowledge their personalitie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which Saul Bellow suggests is that most protagonist's pains and conflicts come from the betrayals, desperation and anger of women and friend. Bellow describes some personalities of Herzog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Herzog and women. Herzog's continuing relationships with women from Daisy to Madeleine to Ramona symbolize from oedipal personality of Herzog to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ideal vision of women.

Herzog appears to have emerged successfully from the crisis. By acting out his rage and desire for revenge, he has released himself from the

worst of it. He finely sees Madeleine again and feels he gets the better of her. He has begun the process of detaching himself from Madeleine and Gersbach by seeing them as ludicrous figures. His temporary isolation has given him some peace of mind, but recovery from grief does not necessarily constitute a transformation of personality.

Herzog may still be neurotic, but he has learned something from having survived his crisis of grief. The pain of grief is just a part of life as the joy of love; it is ,perhaps, the price we pay for love, the cost of commitment. Herzog's ability to grieve deeply is testimony to his power to love deeply, the power that makes him and all of us human.

I. 서 론

Saul Bellow(1915-2005)는 Canada의 Quebec주 Montreal 교외 Lachine에서 태어났다. 네 형제 중 막내로 양친은 1913년 러시아로부터 이주해왔다. 그는 1956년까지 두 번이나 결혼을 했다. 1961년 세 번째의 결혼을 하였으며 자식을 각각 하나씩 두었다. 자서전적 색채가 짙은 *Herzog*(1964)에는 부친의 생활상이 잘 소개되어있다. Bellow는 9세까지 Montreal의 빈민가에서 살았으며 이 지역이 이 소설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Herzog*에 나오는 Napoleon Street은 Montreal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하나인 성 도미니크이다. 도미니크의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종합 병원과 재래시장이 있던 사잇길이 작품에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Bellow의 가족이 1924년에 Chicago로 이사하였고 그는 여기에서 청소년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철저한 Chicago인으로 자처하게 된다.

Bellow의 소설에 있어서 Chicago는 New York과 함께 소설의 중요한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의 작품 *Dangling Man(1944), The Adventure of Augie March*((1953), 그리고 *Herzog*에서는 두 도시의 특징과 자서전적인 작가의 생활배경을 감지할 수 있다. 자연주의 문학에서 엿볼 수 있는 시골의 풍경과는 대조적인 도시의 악, 타락, 퇴폐가 난무하는 도시의 실상을 박진감이 넘치게 잘 드러내고 있다.

Bellow는 1933년 Chicago 대학에 입학했으나, 1935년에 Northwestern 대학으로 전학했다. 인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1937년 졸업 후 작가가 될 결심으로 대학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22세 때 다행히도 Chicago시에 있는 Pestalozzi-Froebel Teachers College에서 교직을 맡게 되었다. 이후 1942년까지 4년간 근무하면서 *Dangling Man*(1944), *The Victim*(1947),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1953), *Herzog*(1964) 등에서 그 당시 불운하게 보냈던 청년기의 경험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 소설들에서 Bellow는 전후 미국의 물질적 변영 속에서의 정신적 마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성장기에 겪은 빈곤한 생활은 Bellow에게 기계적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인간적 자질의 가능성에 대한 절망과 멸시에 대한 분노를 각인시켜주었다. 소외와 관리화라는 근대현상 및 여기에 수반되는 비정한 인간관계를 Bellow는 대부분의 소설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의 시대적 저항의식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개인적 경험에 입각한 자부심 같은 것이 서려있지 않는가

한다.

Bellow는 1941년 *Partisan Review* (5-6호)에 “Two Morning Monologues"를 게재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게 된다. 다음 해에 “The Mexican General"이 발표되었으며 최초의 장편인 *Dangling Man*이 1944년에 발간되었다. 전시에 Bellow는 상선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 데 *Herzog*의 주인공 Moses도 해병대 근무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1947년에 발표한 *The Victim*은 유태인의 의식을 치밀한 구성으로 묘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사이에 Bellow는 Britanica 백과사전의 편집부에 근무했다 (1943~46). 1953년 대작 *The Adventure of Augie March*로 National Book Award를 수상한 이후 그는 일반 독자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956년 *Seize the Day*를, 1959년 *Henderson the Rain King*을, 그리고 1964년에 *Herzog*를 발표했다. 1946년 이후 Bellow는 작가로서의 활동과 병행하여 Minnesota, Yale, Princeton 등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가 2005년 4월 5일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Chicago대학 석좌 교수였으며, 사회사상위원회 위원을 지낸 것으로 보아 창작활동 이외의 학자로서 사회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Herzog*가 1964년에 출간되었을 때 Bellow가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전후 작가로 인정받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그의 순수한 지성, 둘째로 현대 도시의 사색하는 사람들의 역설에 대한 그의 확고한 파악과 도시생활에 대한 뛰어난 감각, 셋째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의식을 거부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Joseph Epstein은 Bellow의 소설들을 정보와 의식을 위해 또 예술의 힘에 부합된 지식의 섭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읽는 독자들은 그를 가장 훌륭한 작가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1]. 비평가 Philip Rahv는 미국 문학을 구분함에 있어서 주요 작가들 Nathaniel Hawthorne과 Henry James 또는 Mark Twain과 Earnest Hemingway로 구분하고 전자는 강력한 예술적 전통 의식에서 소설을 구성했고, 후자는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소설을 썼다고 했다[2]. Bellow는 그 어느 쪽으로도 구분되지 않으나 그의 작품은 사실상 위 두 가지 주요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의 창작력의 우수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이다.

---

1) Joseph Epstein, "Saul Bellow of Chicago," *New York Times Book Review* (May 9, 1971), 4, 12, 14, 16. 참조

2) Philip Rahv, "Bellow The Brain King," *The Sunday Herald Tribune* (Sept. 20, 1964), 1, 14, 16. 참조.

Bellow는 Hemingway와 Faulkner에 버금가는 작가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국문학사에서 평가받고 있다. Bellow의 소설은 상호 관련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20세기의 문학적 허무주의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다이즘과 황무지에 반대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어떤 관습이나 사회제도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Bellow는 자기 자신 본질적으로 침울하고 그의 의식은 현대 생활의 공동화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현대 문학에 있어서의 소외의 전통을 거부하여 그의 소설은 형제 관계와 지역 사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피학대음란증 환자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소외주의자들이다. 또 그의 소설은 개인성을 고집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 단순히 개인의 무서운 힘에 직면하여 무의미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은 바람직한 것이 못되며, 사람으로부터 인간을 유지하는 하나의 짐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주인공들이 우아함을 추구하는 태도는 Bellow가 사랑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개인성을 반대하는 하나의 비유적인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Bellow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 상호간의 결합의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인간의 성실한 삶을 구현하려는 의도를 강렬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주인공들을 통해 그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은 죄책감과 삶의 무가치를 느낀다. 그들 자신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간을 옹호한다. Bellow는 사회적·도덕적 소설가이기 이전에 심리 소설가이다. 그러므로 개인성을 덮고 있는 모순성에 대한 해결책은 역시 지적이기 이전에 심리적이다. 즉, 그들은 죄 있는 자아를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전체의 주어진 조건에 들어가게 함으로써만이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Herzog*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주인공의 기벽이라는 허구를 통해 마음대로 그리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사상을 토로하고 있다. 어떤 사상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논리성을 띠어야 하는데도 Bellow는 마음 내키는 대로 독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Henderson the Rain King*을 제외하고 그의 소설은 주로 유태인을 다루고 있다. *Herzog*에서 Bellow는 유태인의 이민 경험과 그들이 동화 과정에서 맛본 쓰라림을 그들 특유의 삶의 경험으로 또 Herzog의 고유한 경험으로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자립·자주적으로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히브루어가 속출하고 유대인끼리의 편견, 투쟁, 옹호의 세계가 역력히 나타나 있다. 이것은 미국적 동화의 거부를 의미한다.

*Herzog*에서 Bellow는 절망적인 근대비판에서 심미적·감각적 편향을 비난하고,

독일 실존 철학의 공포와 고민의 이론에 존재하는 반인륜적인 가학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그 자신이 이와 같은 문화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그 역시 이러한 문화에 체질적으로 익숙하다고 볼 수 있다. *Dangling Man*이나 *Seize the Day*는 근대 비관주의의 고독과 허무의 색채가 진하게 물들어 있다. 부정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도 긍정의 방향으로 밸런스를 취하려고 하는 점은 Mailer와 대조적이다. *Herzog*에서는 거의 광란의 상태에 빠진 주인공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과장된 익살의 형태로 표현케 하여 작가의 쓰라리고 집요한 회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 Herzog는 아내의 권유로 교수직을 떠나 산장에 칩거하면서, 저작에 전념하게 될 무렵부터 이상스럽게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즉 보편적 인간으로의 회귀가 *Herzog*에 나타난 주제의 한 측면이다. 여기서 Herzog는 자기의 지적 의식으로 인간관계의 실패를 극복하고, 부정과 기만에 대해서도 사색적 지성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애쓰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Herzog*는 20세기 미국사회에 있어서의 민족적 복수 문화의식의 보편화 현상을 가장 잘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aul Bellow가 Herzog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유태민족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미국사회의 민족 차별화의 이질 문화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민족적 갈등 속에서 본질적 인간성이 마비되어 소외되고 타락해 가는 과정을 정신분석학적 측면, 즉 오이디푸스적 이론에 따라 접근함으로써 미국사회에서 복수 문화의식의 보편화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논문의 핵심을 두었다.

이러한 논문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제 Ⅰ장에서는 Bellow가 작품 활동, 특히 *Herzog*를 집필할 당시의 가정 및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 Ⅱ장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로 Herzog와 Madeleine의 불화요인이 어디서부터 파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둘째로 Herzog의 피학대음란적 원인을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마지막으로 Herzog의 오이디푸스적 강박관념이 가정적·사회적 측면과 어떻게 연관되었으며, 결론에서 Bellow가 *Herzog*에서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Herzog*의 성격 분석

A. Herzog와 Madeleine의 불화요인

Bellow의 대표소설 *Herzog*는 "If I'm out of my mind, it's all right with me, thought Moses Herzog"[3]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는 Herzog의 심리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Herzog는 정말 미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우리의 호기심을 야기시킬 만큼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한다. 사실 그의 두 번째 결혼이 파국으로 끝난 데서 오는 극도의 불안감 및 비애, 공포, 허탈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일시적인 정신착란적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Herzog의 정신상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런 심리적인 현상이 아닌가 한다. 정신분석학자 Gerald F. Jacobson은 이혼의 과정에 대하여 ". . . the divorce process requires a propound readjustment that in many instances produces a picture indistinguishable from that of more deep-seated pathology "[4] 라고 말하고 있다. 결혼의 실패감에서 빚어진 슬픔을 포함하여 애통함이란 정신적인 질환과 흡사하여 일시적인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예견할 수 있는 단계이다. Herzog처럼 다른 등장인물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고 더욱 강인한 인물들로 변한다. 그러나 Herzog와 꼭 마찬가지로 "유족들"은 슬픈 감정에 익숙하지 않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끔 자신들이 미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게 여긴다.[5]

Bellow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을 통하여 인간이 겪는 비탄의 아픔과 이혼의 고통에서 파생하는 정신적 역학 관계를 정신분석학자처럼 인간의 심리문제를 깊이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Herzog의 사별, 파혼, 그리고 이혼의 고통에 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의 결혼의 역학적 관계와 그가 겪은 슬픔의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작품에서 Herzog라는 인물이 매우 개성적인 가공인물

---

3) Saul Bellow, *Herzog* (New York: Viking, 1964), p. 1. 이후로 작품명은 H로 표시하고 텍스트의 원문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을 표시함.

4) Gerald F. Jacobson, *The Multiple Crises of Marital Separation and Divorce* (New York: Grune and Stratton, 1983), p. 37. 참조

5) Colin Murray Parkes, *Bereavement: Studies of Grief in Adult Lif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2), p. 164. 참조

로 설정되었으나 그의 사고와 행위는 많은 이혼남들의 사고와 행위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Bellow의 주인공들은 슬픔에 찬 인물들이다. 그 예로 *Victim*에서의 Leventhal, *Seized the Day*에서의 Tommy Wilhelm는 각자 어머니를 애도하는 회상에 젖어있는가 하면, 낯선 사람의 장례식을 보고도 울먹이곤 한다. *Henderson the Rain King*의 Henderson은 작고한 자신의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시도한다. *Mr. Sammler's Planet*의 Sammler는 홀로코스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잃었고 이제 저세상으로 떠나려하는 조카를 지켜봐야할 처지이다. *Humboldt's Gift*의 Citrine은 Humboldt를 애도하며, *Dean's December*의 Corde는 자기 장모가 죽어가는 것을 애처롭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이별이나 이혼을 겪고 있으나 Herzog의 고통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Herzog*는 미국의 역대 소설 가운데서 이혼과 그 결과의 문제를 심리학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매우 예리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작품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특별히 Herzog가 소설의 말미에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정신적 자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Bellow는 *Herzog*를 1965년에 최상의 소설로 자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이혼의 경험이 있었던 인물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무의식적인 동정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6] 사실 미국의 이혼율은 1950년대에 주춤했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70%로 증가되었다[7].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듯 *Herzog*의 주인공은 그 당시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주인공의 설정이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특히 John F. Kennedy가 암살을 당하기 한 달 전인 1963년 10월에 Herzog의 아내 Madeleine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다. 그러므로 Herzog의 비통은 미국의 국가적 비통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사실 Herzog는 자신이 자기의 아내와 절친한 친구 Gersbach로부터 암살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Jonathan Wilson은 Bellow가 관심을 갖는 이혼의 사회적 심리학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그가 서구적 고통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제반 요소들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8] Herzog의 성격묘사가 심리학적으로 믿을만한 고통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서구적 고통"에 관한 Bellow의 개념이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

6) Gordon Lloyd Harper, "Saul Bellow; An Interview," *Herzog*, ed. Irving Howe (New York: Viking, 1976), p. 354. 참조

7) Robert S. Weiss,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5), p. 5 참조.

8) Jonathan Wilson, *Herzog: The Limits of Ideas* (Boston: Twayne, 1990), p. 6. 참조

독자들은 그의 성격창조에 신뢰감을 보내고 있다 .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무의식적이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것과는 달리 Bellow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주인공 Herzog에게 있어서 정신분석학은 너무나 편협하고 결정론적이며 해명할 수 없는 것으로 비쳐진다. 예를 들어 Herzog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It is, if you're looking for the psychological explanation, childish and classically depressive. But Herzog didn't believe that the harshest or most niggardly explanation... was necessarily the truest. (H. p. 231)

정신과의사 Dr. Edvig을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소설에서 정신분석학을 풍자하고 있는 작가와 작품의 주인공 둘 다 공히 정신분석학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Herzog*의 주인공이 그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프로이트적 사상이 작품에 깔려있기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은 이 소설이 프로이트 심리학적 이론을 배척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Mosses Herzog calls himself "a prisoner of perception" but actually perception is his prisoner. He sees only what he needs to see, and we see only what Herzog sees. This dependence on a distorted perceiver has caused critical misunderstanding of the novel. Herzog is a psychological novel: the ideas have a function in the hero's story.[9)]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작품의 핵심적인 기능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런 관념자체가 그의 생명이며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Herzog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습성 때문에 그는 사회와 타인들로부터 소외되게 되고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그는 생각나는 대로 한때 결혼 후 이혼한 두 아내, 애인들, 친구들, 정치가, 정신분석학자, 철학가, 신학자, 내무장관, *New York*지, 대통령, 생자와 사자, 그리고 하나님께도 편지를 쓴다. 그

---

9) John J. Clayton, *Saul Bellow: In Defence of Man*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79), p. 186.

는 편지를 씀으로 해서 고뇌를 소화시켜 보려는 그의 불가피한 현실 타개책이 아닌가 한다. 그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 Gersbach와 아내 Madeleine과의 정사 사건, 그에 대한 그들의 계획적인 음모 등으로 인하여 그는 분노하고 고뇌를 삭이어야 했다. 또한 너무 순진했던 자신을 탓하고 후회로 인해 초래된 심적인 혼란을 바로잡고 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한 돌파구로 편지쓰기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불안정한 심적 상태가 다음과 같은 편지에 잘 나타내고 있다.

> *Dear Mama, As to why I haven't visited your grave in so long...*
> *Dear Wanda, Dear Zinka, Dear Libbie, Dear Ramona, Dear Sono,*
> *I need help in worst way. I am afraid of fallinf apart. Dear Edvig,*
> *the fact is that madness also has been denied me. I don't know*
> *why I should write to you at all. Dear Mr. President, Internal*
> *Revenue regulations will turn us into a nation of bookkeepers.*
> *The life of every citizen is becoming a business. This , it seems to*
> *me, is one of the worst interpretations of the meaning of human*
> *life history has ever seen, Man's life is not a business.* (H. p. 11)

부분적으로 Bellow는 자신의 개인적인 억압, 분노, 지적인 자기중심의 성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정사를 통해 Herzog에게 인생의 쓰라린 비애를 맛보게 했으나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Bellow와 마찬가지로 Herzog는 자신의 사적인 고통을 "서구적인 고통"과 같은 보편적인 문제들로 지성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Bellow는 자신의 감정적인 혼란으로 부터 예술 즉 문학 형태, 문체와 희극을 통하여 자신을 떼어놓고 있다. 동시에 작품의 주인공을 통하여 그러한 방어를 과장함으로써 지나친 지성적 분석을 포함한 자기방어를 조롱하고 있다.

*Herzog*에서의 주인공의 활동은 주로 심리적인 진행과정이다. 즉 주인공은 프로이트가 "the work of mourning"[10]라고 말하는 것을 몸소 겪고 있는 것이다. Herzog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추억과 감정을 통하여

---

10) Sigmund Freud,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trans. and ed.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1957), pp. 24.

계속 분류를 하고 있다. 위기의 절정에 이르러 일상적인 행위를 깨트리고 애도인으로 하여금 자아와 세계에 대한 낡은 관념들을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찾도록 도전을 시킨다.[11] 몹시 슬퍼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건들과 그것을 분류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속적인 관념에 적응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바로 이러한 것이 Herzog가 해야 할 일로 Bellow는 판단하고 있다.

> Late in spring, Herzog had been overcome by the need to explain, to have it out, to justify, to put in perspective, to clarify, to make amends. (H, p. 2)

Herzog가 겪어야하는 애도의 성격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그가 사랑하고 증오하는 대상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일이다. 즉 과거에 사랑의 대상들,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처 Madeleine과 이전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 Gersbach와 분리하는 것이다. 그는 미래를 맞이하기 이전에 과거를 이해해야하는 것이다. 적절하게도 소설의 전반을 통하여 Herzog는 정신감정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정신분석학자가 되어 대화로 치료를 하면서 누워있다. 이와 같이 이야기의 진행은 1인칭 주체 즉 정신분석의 수혜자와 3인칭 객체 즉 분석자로서의 Herzog의 상황이 바뀌고 있다. 그는 기억을 하고 자유롭게 연상을 하여 마침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중요한 순간에 이르게 된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처음 소설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소설을 끝낸다. 비통의 절정은 지나고 그와 더불어 강박관념적인 회고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렇지만 그의 신경과민적인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즉 그는 완전히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시적으로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Herzog가 겪은 이혼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그의 결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Bruce Fisher와 같은 이혼 치유학자는 이혼이란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몇몇의 잘못된 이유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 . . . a need to parent someone, or . . . a need to be parented . . . a need for power and to be in control of someone, or to be

---

11) Parkes, *op. cit.*, p. 35. 참조

controlled. Sometimes we have to go through several relationships and divorces to rework our parental relationships.[12)]

Herzog는 그의 첫 아내 Daisy를 “Stability, symmetry, order, containment,... By my irregularity, and turbulence of spirit I brought out the very worst in Daisy (H, p. 126).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너무나 닮은 유태여인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녀에게서 떠난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불규칙적이고 난폭한 또 다른 극단의 성격을 Madeleine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녀가 젊고 아름다우며, 찬란하기 때문에 외모만을 보고 그녀와 결혼을 하며 자신의 처지를 "As long as Moses was married to Daisy, he had led the perfectly ordinary life of an assistant professor, respected and stable" (H, p. 5.) 라고 말한다. Madeleine은 Herzog가 조교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성적인 매력을 갈망하며 이를 제공했다.

. . . everyone drawn into the drama of her life became exceptional, deeply gifted, brilliant. It had happened also to him. (H, p. 38).

Madeleine은 Herzog의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의 성격을 더 닮은 거칠고, 화를 잘 내고 자신을 극화하는 영혼을 지닌 인물이다. Clayton은 Herzog를 그가 자신의 상상적인 성적 죄의식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속죄하기를 원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피학대음란증환자로 보고 있다.

Mady the Bitch is then a father substitute. Just as Herzog's father was disgusted at Moishe for the disorder in his life, so Mady demands order. . . She, too is his judge and beater, she too - and this is most important-wants him dead at least as Herzog sees it.[13)]

---

12) Bruce Fisher, *When Your Relationship Ends* (Boulder, CO: Family Relations Learning Center, 1984), p. 88.
13) Clayton, op. cit., p. 197.

결혼 후 Madeleine의 무질서한 생활은 Herzog를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규칙제조자이자 잔소리꾼으로서의 Daisy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든다. 또한 Madeleine의 엉성한 가정살림과 낭비벽에 대하여 그는 계속 불평을 한다. Herzog는 Madeleine이 혼란 속에 빠져있는 동안은 학구적인 일을 수행할 수가 없다. Madeleine에 대하여 보다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에 따라 그와 이름이 같은 성서의 입법자인 Moses를 닮아가게 된다. 결국 Madeleine은 간음을 하고서 Herzog가 Daisy를 버렸던 것과 꼭 같이 그를 배신하게 된다.

B. Herzog의 피학대음란적 요소

Herzog와 Madeleine의 관계에는 뚜렷하게 가학 피학성의 변태성욕적인 요소가 있다. Madeleine은 Herzog가 변태성욕적인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은밀하게 갈망하는 여인이다. 즉 Herzog는 “She seems to have served a special need″ (H, p. 334)라고 은밀하게 갈망하고 있다. 그는 우아한 발꿈치 아래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실토한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를 꺾고 “kick out his brains with a murderous bitch foot″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또 그는 ”there was a flavor of subjugation in his love for Madeleine” (H, p. 93)을 인정하고, 그녀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만 자신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역할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Herzog는 자신이 피학대음란증 환자이기 때문에 체벌을 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힘을 쓰도록 도와주었음을 고백한다. Herzog와 Madeleine의 관계에는 주목할 만한 가학적이고 피학대적인 요소가 있다. Madeleine은 Herzog를 지배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Herzog는 자신이 Madeleine의 c치마 밑에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자신이 그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잔인한 악녀 같은 발로 자기의 머리를 차버리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Herzog는 자신이 피학대성 성도착자요 자기연민에 빠져있음을 인정한다.

His face revealed what a beating he had taken. But he had asked to be beaten too, and had lent his attackers strength. . . What sort of character was it? Well in the modern vocabulary, it was narcissistic; It was masochistic; It was anachronistic. (pp. 25-26)

심지어 Herzog는 고통을 통해 얻은 도덕적 결실을 믿고 고통을 겪는 데서 오는 자신의 힘의 이점을 주장한다. 그의 연인 Ramona는 그에게 “Poor Moses - unless you′re having a bad time with a woman you can′t believe you′re being serious.″(H, p. 157)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Madeleine을 선택하게 된 저변에는 고통을 통한 위엄이라는 모순된 욕망을 성취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Herzog는 가학적 성격과 순교자적 자세,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랑은 Madeleine이 그에게 이혼을 통보할 때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매달리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Herzog said, ″I do love you, Madeleine″ step by step. Madeleine rose in distinction, in brilliance, in insight. Her colour grew very rich and her brows, and that Byzantine nose of hers, rose, moved, her blue eyes gained by the flush that kept deepening, rising from her chest and her throat. She was in an ecstasy of consciousness. It occurred to Herzog that she had beaten him so badly, her pride was so fully satisfied, that there was an over flow of strength into her intelligence. He realized that was witnessing one of the very greatest moments of her life. ″You should hold on to love me. But I think you also understand what a humiliation it is to me to admit defeat in this marriage. (p. 33)

Herzog는 그의 장엄하고 피학대음란증적인 갈망에 덧붙여서 그가 낭만적인 삼각관계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색정적인 자극을 받는다. Madeleine과 Monsignor, Madeleine과 Gersbach, Wanda와 그녀의 남편, Ramona와 George Hoberly와의 관계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Herzog는 마치 그가 성행위를 하는

가운데 Madeleine과 Gersbach를 붙잡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들을 몰래 숨어서 감시함으로써 시기심 많은 Hoberly를 모방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Herzog는 계속해서 오이디푸스적 삼각관계에 휘말려 있다. 그리고 그의 성생활에 대한 죄의식과 벌을 받고자하는 갈망은 이와 같은 콤플렉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Herzog에게 일종의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Gersbach는 오이디푸스적 성격의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그가 Herzog에게서 Madeleine을 앗아감으로써 Herzog에게 처벌을 가하여 복수하는 아버지의 대리인 역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Herzog 자신의 오이디푸스적 반역을 하고 있음이다. 그 이전의 장면에서 Gersbach는 “like a judge in Israel, a king" (H, p. 147)과 같은 아버지였다. Herzog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a king" (H, p. 147)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후의 장면에서는 Gersbach는 반역적인 아들이며 Herzog는 Gersbach가 해임하는 군주이다. Herzog는 Gersbach가 자기에게 “궁중 안으로 몰고 들어와서 베르사이유 궁전을 약탈해 가는 군중을 상기 시킨다”(H, p. 215)고 말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Gersbach는 Herzog를 속이고 남편역할을 함으로써 힘이 센 아들임과 동시에 거세된 －그가 다리 한쪽을 상실했기 때문에－아버지의 상을 떠올린다.

Madeleine은 “Madeleine hated her father violently" (H, p. 8)에서 보듯이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부 Herzog에게 끌려 그와 결혼을 하였다. Madeleine의 이러한 성격적 배후에는 그녀가 14살 때 당했던 성폭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호색한적인 인상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매달려 쩔쩔 매던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과 멸시감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 “My childhood was a grotesque nightmare." She went on. "I was bulled, assulted, ab-ab-ab. . . " she stammered. "Absurd?" she nodded. . .
> Her eyes were suddenly full and her pretty mouth desperately vengeful but silent. . . "My fourteenth year is blacked out."
> "My parents damn near destroyed me." (p. 117)

따라서 그녀는 자기어머니의 결혼과 같은 결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녀는 이기적인 아버지에게 복수하기위서 Herzog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Madeleine은 20대이고 Herzog는 40대여서 그녀

에게 그는 “a fatherly, graying, patient seducer” (H, p. 112)로 비쳐졌다. 따라서 Madeleine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Herzog는 너무나 많은 면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닮았으며, 횡포하고, 천진스러우며, 지나친 요구를 하며, 냉소적이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약자를 못살게 구는 인물이라고 편지를 쓴다(H, p. 191).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어머니 Tennie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Herzog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Herzog를 괴롭힌다. 즉 Madeleine은 남편 Herzog에 대해서 어떤 불안정한 감정이나 미래에 대한 모순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Herzog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악의 존재인 것이다.

> She was posed with the horse, about to mount a stocky long-haired girl with fat wrists and desperate dark shadows under eyes, premature signs of suffering and if a craving for revenge. . . She had the hauteur of the female child who knows it won't be long before she is nuible and has the power to hurt. This is mental politics. The strength to evil is sovereignty. She knew more at twelve than I did at forty. (p. 240)

그래서 Madeleine과 Herzog의 결합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신경증의 욕구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Bohannon은 그들의 결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Probably all of us marry, at least in part, to defend old solutions to old conflicts. The difficulty comes when two people so interlock their old conflicts solutions that they cannot become aware of them, and hence cannot solve them.[14)]

Herzog와 Madeleine은 서로에게 가학성 변태성욕자나 피학대음란증환자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수년 동안 불건전하고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최악의 결혼은 상대로부터 벌을 받는 것을 통하여 분노를 해소하거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가 있다. 따라

---

14) Paul Bohannon, "The Six Stations of Divorce," *Divorce and After: An Analysis of the Emotional and Social Problems of Divorce,* ed. Paul Bohannon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1), p. 61.

서 무거운 짐이 되는 결혼이라 할지라도 걱정을 덜어줄 수가 있다.[15]

그렇지만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 Madeleine은 은밀한 면과 동시에 공공연한 면 그리고 재정적인 면과 성적인 면과 같은 많은 면에서 그녀의 불만을 터트렸다. 결혼의 갈등은 실재적인 난관들이 무의식적이거나 인정할 수 없는 영역에 있을 때 금전이나 성문제의 싸움으로 전개된다. 의사소통의 와해가 나타나는 첫 서명은 상대방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성적 공감대의 상실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증상일 뿐이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Madeleine은 쇼핑광으로 물품구매에 대한 막대한 청구서가 늘어나고 있는 데 그녀는 잘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Herzog는 이러한 현상을 정신질환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그녀에 대하여 매우 유순한 태도를 취한다 (H, p. 57). 그러나 그는 Madeleine이 수표를 부도처리하고 한 가지 출산 용품에 5백 달러를 소비했을 때는 그렇게 유순하지는 않는다. 이때 Herzog는 냉소적으로 "Who's going to be born - Louis Quatorze?" (H, p. 123)라고 묻는다. 그러나 Herzog가 그의 내심으로 은밀하게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분명히 그녀가 구매하는 것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되고 있다. Herzog는 이혼을 한 후에 남편의 돈을 낭비하는 여자는 남편을 거세하기로 작정한 여자라고 생각한다.

> A woman who squandered her husband' money, all psychiatric opinion agreed, was determined to castrate him" (H, p. 202)

이와 같은 거세의 현상은 결혼 침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학문 활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Herzog는 전처인 Daisy와는 다르게 Madeleine는 그의 지적인 동지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적 라이벌이 되었다. Madeleine은 슬라브어를 전공하여 러시아 문학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 관해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여성이다. 그러나 Herzog는 Madeleine의 지적탐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업신여겼으며 그녀의 지적욕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녀의 지적열망이 Herzog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로 여겨, 침대위에 놓여 있는 그녀의 먼지투성이 러시아어 백과사전 때문에 그녀와 심하게 다툰 후에 Dr. Edvig

---

15) Jacobson, op. cit., pp. 72-74 참조.

과의 대화에서 그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 "Why do you suppose it happened?"
> "Something about the books, maybe, inference with her studies. If I say the house is dirty, it stinks, she thinks I'm criticising her mind and forcing her back into homework. Disrespectful of her rights as a person. . . (p. 105)

결국 Herzog는 Madeleine의 지적탐구욕을 한 개인의 자아발견이나, 성취욕, 순수한 지적욕구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공격하여 파멸시키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그들의 성생활은 더 악화되어 Herzog는 가끔 조루증과 성적불능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Madeleine의 참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스러운 월경통이나 Herzog의 증상들이 그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더욱 나쁜 현상은 Madeleine이 여자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Herzog의 성적 불능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폭로하며 파혼에 대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은 결혼생활에서 불화의 2차적인 위기로 간주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Herzog는 불륜의 정사를 통하여 자신의 손실을 보충하려하지만 Aunt Zelda는 이러한 Herzog의 시도를 비난하고 있다. Herzog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그녀의 비난을 거부하지 않고 "She made it tough for me, too. Sexually" (H, p. 39)라고 말한다. 그러나 Herzog가 Madeleine에게 충실하였고 그리고 독자가 이러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Herzog의 가장 친한 친구와 수년간 은밀한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Zelda를 끌어들었다. 간음의 행위까지도 의사소통을 하고자하는 시도 즉 결혼 자체를 발전적으로 회복시키고자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으로 합리화 하고 있다. 아니면 배우자에게 굴욕을 주어서 떠나게 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Vaughan은 말하고 있다.[16)]

Gersbach는 결혼이 파경으로 치닫고 있어 곤경에 처해있는 친구이자 중매인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의 역할이 Madeleine에게는 연인이 되고 Herzog에게는 잘못된 친구로 변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도

---

16) Diane Vaughan, *Uncoupling: Turning Points in Intimate Relationship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6), pp. 42-43 참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다. Herzog는 그가 보스톤에서 Gersbach가 Madeleine에게 피임용 질 좌약을 가져다주려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서 이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사실 보스톤에 함께 그들이 간 목적은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Herzog는 Madeleine에게 Gersbach가 그녀의 연인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단호히 부정을 한다.

이 단계에서 Madeleine은 상대에게 대단한 상처를 입히는 게임을 하지만 Herzog에게서 떠나리라는 사실은 확실히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Madeleine의 심리적 상항을 Vaughn같은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The initiator [the spouse who eventually initiates the divorce] will not risk losing the relationship until he or she has created what seems to be a secure niche elsewhere[17)]

Madeleine과 Gersbach는 각자의 현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함이 이롭기 때문에 수년 동안 각자 불륜의 관계를 알면서도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Madeleine은 Herzog에게 상처나 경고를 주려고 간통을 저질렀으나 점차로 파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Madeleine은 Herzog와의 결혼생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Madeleine이 오랫동안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Herzog는 자신의 관심사항에 맞는 단서들만을 기록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무시하고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이 Herzog는 내심으로는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으나 자신의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단지 불건전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Herzog는 이와 같은 고집스러운 사리분별력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책을 하는 결과를 낳는다.

Herzog는 Madeleine의 행동을 너무나 잘못 판단한 나머지 자신의 정신과 주치의를 만나보라고 Madeleine에게 권유한다. Madeleine이 Herzog가 그녀를 미행하도록 사설탐정을 고용한 것 때문에 Herzog를 비난할 때, 그는 Dr. Edvig의 충고를 듣고서 비록 탐정이 그녀의 부정한 행위를 밝힐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그녀가 걱정한다고 해도 그녀의 비난을 과대망상의 증세라고 말한다. Madeleine은 Herzog에 대항하기 위해 Dr. Edvig을 이용하고 있다. Dr. Edvig 역시 Madeleine이 파혼할

---

17) Vaughan, op. cit., p. 78.

수 있도록 그녀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다.

역설적으로 Madeleine이 화를 내고 더 멀어지면 그만큼 더 Herzog는 부드럽고 유순하게 방어를 하여 행동을 한다. 이때 Herzog는 자신을 속이고 Madeleine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니 자기가 치료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하기 전에도 Herzog는 마치 성경에서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Madeleine을 구원한 기사로 착각한다. 두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신념을 고수하고 있다.

> He still thought perhaps that he could win by the appeal of passivity, of personality, win on the grounds of being, after all, Moses —Moses Elkanah Herzog— a god man, and Madeleine's particular benefactor. He had done everything for her-everything! (H, p. 10)

그러므로 Herzog는 Zelda에게 Madeleine은 환자이니 그녀를 돌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고 살아온 전 과정에서 Herzog의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He led her to the bed and lay down with her to warm and comfort her, just as she wanted him to (H, p. 118)."라고 회상한다. Madeleine이 자해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Herzog가 그녀를 간호했을 때라는 것이다. 타인을 간호하거나 간호를 받는 추억은 종종 *Dangling Man*에서의 Joseph, *Seize the Day*에서의 Tommy Wilhelm을 포함하여 Bellow의 주인공들에게서 가장 다정하고 인상적인 장면들이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최초의 어머니와 어린애와의 가장 친밀한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Madeleine은 Herzog가 희생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Oh, balls! So now we're going to hear how you saved me. Let's hear it again." (H, p. 124)라고 몹시 화를 낸다. Herzog가 Madeleine의 비난을 수용했을 때 그는 사실 자신의 어머니를 모방하여 자아 순교를 하는 유대 어머니의 역을 한 것이다. 반면 Madeleine은 Herzog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망나니 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꼬집고 있다.

마지막으로 Madeleine은 결혼을 끝내기 위해 적당한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 Madeleine이 Herzog와 마주쳤을 때 그는 그녀의 계산된 말을 잔인하다고 여기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Madeleine과 그는 고통의 과정상 다른 단계에서 단지 서로의 생각이 같지 않다. 즉 Madeleine은 애통해하며 결혼을 그녀의 뒷전으로 돌려놓은 지가 수년이고 그는 이제 막 시작인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겪은 비통한 심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심리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Jacobson은 사별과 이혼 간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혼에서는 배우자가 아직 생존해 있으므로 비통한 심리상태를 복잡하게 하여서 훨씬 더 노여움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사람들은 사별한 사람들보다도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경향이 훨씬 더하다. 자살을 한다는 것은 증오하는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18] Herzog는 Madeleine과 Gersbach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있으며, 때때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살인적인 분노와 살인의 환상들은 별거하거나 이혼한 사람들 간에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실재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를 우리의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 있다. 정신병리학자인 Myers는 이혼한 남자의 특징적인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 . violent behavior directed against their wives. . . ; violence toward their children and strangers; decreased work efficiency . . . ; compulsive and frenetic dating; indiscriminate sexual behavior. . . ; isolation from family and friends; limited and superficial relationships with women.[19]

Herzog는 어린애들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모든 행동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리는 Herzog가 이혼의 비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여러 단계의 진행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단계로 그의 아내가 그를 저버린 직후 여러 달 동안 충격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며 두 번째로 침울해진다. 이 기간에 그는 쉬지 않고 여행을 하고 성적인 방종을 통하여 자신을 방어한다. 셋째로 자신의 아내가 간음을 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거의 살인적인 우울증에 빠진다. 그는 살인 감정을 일으키는 분노의 단계에서 Madeleine과 그녀의 연인을

---

18) Jacobson, op. cit., pp. 66-70 참조.
19) Michael Myers, *Men and Divorce* (New York: Guilford, 1989), p. 13.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로 끝나면서 절정에 이른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고와 억류로 인해 그가 갑자기 상처를 입고 시골로 가서 회복과 수양을 시작하면서 타인뿐만이 아니라 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위의 1단계와 2단계는 Madeleine이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을 한 후에 Himmelsteines와 잠시 함께 머물렀던 기억과 그가 몇 달 동안 여행을 한 기억으로 해서 희석된다. 대조적으로 이야기는 가장 민감하고도 극적인 이혼의 고통의 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Herzog의 분노와 살인계획들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뒤이어 그의 퇴각과 시골에서의 심신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Herzog가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Madeleine이 무정하고 거세한 음란한 여인이라면 왜 그는 그토록 그녀의 상실에 대하여 비통해 하는가? 대신에 그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축하해야하지 않는가? 아마도 Herzog의 우울증에는 피학대음란증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을 즐기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Madeleine이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rzog는 본래 우울하고 피학대음란증적인 성격이 그의 비애를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 때문에 산산 조각이 난 느낌일 것이다. 비참한 결혼생활에서 애통해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세월과 정신적인 욕구와 각기의 자아상이 서로의 관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결혼상대자가 누구이든지 부모와 어린애와의 관계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애착이 가기 마련이다. 사실 최악의 애통은 훌륭한 결혼 후가 아니라 잘못된 결혼 후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의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왕의 속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을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했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의 Herzog도 유사한 인생 역정을 겪고 있다.

사실상 Madeleine이 이혼을 원한 것이지 Herzog가 이혼을 원한 것이 아니다. Herzog는 자기들의 결혼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Madeleine이 그를 내쳐버렸다. 따라서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비통한 심정은 자신에 국한 된 것이지 상대에게 피해가 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7세의 나이에 Herzog는 자신이 허송해버린 세월들, 연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유태인의 아들로서의 그의 두 번째 주요 실패를 애통해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손상

된 생애를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잃어버린 자아상을 더 애통해 하고 있다.

Herzog는 아내를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 June과 가장 친한 친구 Gersbach와 그의 처가 친척들,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그의 장모 Tennie와 Madeleine의 고모 Zelda와 삼촌 Herman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는 추방당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즉 그는 가족, 친구, 직업, 가정 그리고 고향 즉 그의 전체적인 안정된 존재와 자아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그는 학문적인 생애에 대한 상실을 애통하고 있다. 결혼기간 동안에 그는 지적인 역사를 혁신하고자하고 현대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활 방법을 말해주고자하는 그의 의도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조차도 몰랐다. 이 작품은 Herzog라는 인물을 옹호하고 그의 첫 이혼과 Madeleine과의 결혼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는 유대교 아들로서 부모님의 높은 도덕적 생애의 기대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Herzog는 뒤늦게 Madeleine의 간통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과거는 상실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즉 그가 수년 동안 자기에게 가장 근접한 사람들을 그토록 완전하게 잘못 알고 있었다면, 다른 모든 일에서도 실수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Herzog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상실한 것을 애통해한다. 이혼이 주는 가장 큰 압박은 자기도취에 대한 상실감이었다. Herzog는 부분적으로 Madeleine의 미모와 젊음, 재기발랄함, 뛰어난 외모가 그녀의 자기도취증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Madeleine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녀에게 잔인하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키워왔든 과대한 자아상이 철저히 붕괴되고 어리석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그의 주체성을 새로이 구축하고 자아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Herzog는 Madeleine에게 화가 났지만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자신에게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Herzog는 자기만 몰랐던 Madeleine의 외도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를 비웃고, 서방질하는 Madeleine과 Gersbach와 공모하였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는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져서 자책하게 된다. 게다가 격노하여 원한을 품는다. 그는 남자로서의 성적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자아상까지도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회복하기 가장 심각한 손실인 것이다.

Herzog가 그의 친구에게 “Another divorce-out again, at my time of life. I can't take it. I don't know... it feels like death” (H, p. 81)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이혼이란 일종의 정신적인 죽음인 것이다. Herzog가 신경쇠약의 상태에서 자살과 살해의도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불과 몇 개월 내에 겪었던 그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볼 때 신체적으로는 병들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는 건강하였으나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받으러가면서 절반은 진심으로 아프기를 바라고 한편으로는 이혼만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요행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Herzog의 문제는 그가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의 비애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는 "비통의 가르침" (H, p. 148)을 대물림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비통함이 그에게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rzog는 애통이란 하찮고 나약하며 유치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그는 비통해하는 것에 대하여 "Grief, sir, is a species of idleness" (H, p. 3), "The busy bee has no time for sorrow" (H, p. 267)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 그는 또한 "I'm not even greatly impressed with my own tortured heart. It begins to seem another waste of time" (H, p. 17)이라고 까지 말한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부끄럽고 타인들에게 자신의 짐을 덜어놓는 것 또한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가 겪고 있는 심각한 심리적 갈등, 비통, 특히 이혼의 비통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있다. 비통함은 그것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찮은 것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혼은 비난의 대상이며, 이혼의 고통에 대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러한 현실을 Krantzler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Most divorced people in need of help do not seek it because, consciously or not, they have bought society's picture of them as failures . . . They feel they *deserve* whatever suffering they are going through.[20]

따라서 Herzog도 "What he was about to suffer, he deserved. He had sinned long and hard: he had earned it(H, pp. 8-9)." 라고 생각한다. Herzog는 아내와 헤어진 직후 도망이라도 치듯 강의를 하기 위하여 시카고를 떠나 유럽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낯선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움직임으로써 고통을 잊으려 한다. 또한 일련의 정사를 통하여 자신의 정력을 스스로 재 보증하려 한다. 그렇지

---

20) Mel Krantzler, *Creative Divorce: A New Opportunity for Personal Growth* (New York: Evans, 1974), p. 44.

만 비통을 피하고자 떠날 때 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수개월 후에 시카고로 돌아온다. 그때 Lucas Asphalter가 Madeleine과 Gersbach의 내통을 폭로하는 데 이는 Herzog의 위기를 촉진시키는 추가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비통 속에 그것 이상의 상처를 가함으로써 치유의 과정이 연장되고 있다. Herzog는 자신의 상태가 누구에게라도 눈에 띄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는 과민하고 모순적이어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이러한 그의 모순된 행동으로 인하여 그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C. Herzog의 오이디푸스적 강박관념

Herzog의 비통 가운데 또 하나의 복잡한 상황은 부차적 상실이 주된 상실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재개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Madeleine을 잃게 되는 슬픔 속에서 Herzog는 동시에 자신의 생애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손실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또다시 애통해 한다. Herzog는 결별의 두려움을 다시 경험하면서, "*This year I covered half the world, and saw people in such numbers - it seems to me I saw everybody but the dead.* Whom perhaps I was looking for" (H, p. 67)라고 생각한다. Weisses는 이와 같은 Herzog의 상황을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When my husband left I had this panicky feeling which was out of proportion to what was really happening. I was afraid I was being abandoned . . . . I remembered later that the first time I had that feeling was when I had pneumonia and my mother left me in the hospital, in a private room, in the winter. . . And I had such a feeling of panic and fear at being left.[21)]

---

21) Robert S. Weiss, "The Emotional Impact of Marital Sepa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1976), 137.

어린아이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유기와 죽음을 연관시키게 되어 있다. Herzog 역시 어린 시절 겨울철에 병원에 유기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 "He had been eight years old, in the children's ward of the Royal Victoria Hospital, Montreal . . . . From the hospital roof hung icicles like the teeth of fish. . . ." (H, p. 22).

이 기억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Herzog는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려고 매 주간 방문했던 여인과 그 병원을 연상하고 있다. Madeleine이 캐톨릭 신자가 되었을 때, Herzog는 Madeleine을 이 기독교 여인과 연상시킨다. 왜냐하면 두 여인들이 공히 긴 스커트와 긴 머리핀이 달린 비슷한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H, p. 112). Madeleine의 얼굴은 기독교도 여인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긴장되고 험상스러운 모습이다. 이 여인은 애매한 인물로서 Madeleine은 Herzog의 어머니 부재 시에 대모 역할을 함으로써 그에게 좋은 여인으로 비쳐진다. 연상과정에서 그녀는 냉혹한 모습으로 위험스러워 보이는 머리핀을 꽂고 있는 것으로 연상되어 그에게는 유기와 거세와 죽음의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그 때문에 Herzog가 어린애처럼 그녀에게 집착해야만 하는 이질적이고 억압적인 어머니 상과 비유된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오이디푸스적 강박관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Herzog는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수십 번 회상을 한다. 그녀는 친절하고 꿈이 많으며, 침울한 여인인데 그는 자기 어머니의 부드러운 면을 이어 받았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하여 희생했지만 율법교사가 되기를 바랬던 그녀의 막내아들 모세를 버릇없이 키웠다. 이제 그는 어머니의 실패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3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을 무시한 사실에 대하여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물론 어떤 어린애라도 그토록 엄청난 어려움을 의연하게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16세 때 느꼈던 강한 분노－"sick with rage" (H, p. 234)－를 느꼈지만 그 분노를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시키지 않고, 자기가 읽었던 책들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

특징적으로 Herzog는 개적인 것에서 죄책감과 분노를 노출하고 있다. 즉 그가 수용하기가 더 쉬운 것으로 여겨지는 지적인 분노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는 분노의 편지쓰기와 지적인 논쟁을 벌이곤 한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부짖으

면서 애도조차 표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가 아직도 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역병처럼 심리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이혼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상반된 감정이 재개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미증유의 슬픈 감정, 죄책감, 분노, 결별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애도할 수 없는 것 등에 대한 감정이 다시 유발되고 있다.

덧붙여 Herzog의 결별의 위기가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식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재발케 함으로써 새로운 오이디푸스적 위기를 촉발시킨다. 이 작품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그가 아버지의 총을 훔쳐 살해를 감행할 마음으로 Madeleine과 Gersbach를 감시하는 오이디푸스적 상황이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애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시도한다. 즉 그는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총을 찬탈하고 그들의 원초적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하여 그들을 감시한다. 그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그 다음날 체포되는 것은 오이디푸스적인 반란에 대한 처벌을 자초하고 있다. 이 장면 이후로 그의 모든 힘이 약화되는 데 이는 그가 오이디푸스적 위기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심리적 위기감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Herzog가 어머니의 부분적인 기질을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화를 잘 낸다든지, 충동적이라든지, 자기 극화를 하는 것이나 빈번히 실패를 하는 것 등 아버지의 기질도 노출된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Gersbach와 닮은 사업 파트너로부터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구타를 당한 사실을 회상한다. 자신의 아버지께서 찢어진 옷과 상처를 어린 자식들에게 보였을 때 어린애들은 아버지와 함께 울부짖었다.

Herzog는 자신의 아버지가 총을 흔들어대며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의 총을 훔쳤지만 Madeleine이나 Gersbach를 사살할 수 없을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결코 그의 생애에 그의 총의 방아쇠를 당겨보지 못하고 오로지 위협만 한 “gilded little gentleman” (H, p. 146)--와 마찬가지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폭력은 자신의 인생극과 가족의 투쟁 속으로 파고들었다고 Herzog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소설의 초반부에서 Herzog는 아버지의 총으로 Madeleine과 Gersbach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Herzog는 권총을 가지러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권총을 갖고 나온다. 무엇보다도 그는 딸 June을 구하고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려 하는데 Keith Opdahl은 이러한 Herzog의 새로운 남성다움은 폭력에 호소하여 문제

를 해결하려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2]

그러나 Herzog는 일찍이 어느 누구도 현재의 자기처럼 뚜렷한 명분을 갖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갖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그는 자신에게 저지른 Madeleine과 Gersbach의 행위가 정당한 살인의 이유를 자신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살해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시키고 있다.

> In spirit Madeleine was his murderess, and therefore he was turned loose, could shoot or choke without remorse. He felt in his arms and in his fingers and to the core of his heart, the sweet exertion of strangling—horrible and sweet, an orgiastic rapture of inflicting death. (p. 312)

마침내 그는 권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Madeleine을 찾아간다. 확고한 결심으로 손에 권총을 쥔 채 그는 욕실의 창문을 들여다본다. 그때 Herzog는 뜻밖에도 Gersbach가 딸 June을 사랑스럽게 목욕을 시키는 모습을 목격하고 Gersbach를 죽일 생각을 포기한다. 자신에 대한 그의 배신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 대한 그의 인간적인 태도는 자기를 대신한 아버지의 사랑스런 행동으로 인식되었든 것이다.

> To shoot him! -an absurd thought. As soon as Herzog saw the actual person giving an actual bath, the reality of it, the tenderness of such a buffoon to a little child, his intended violence turned into theater, into something ludicrous.(pp. 315-16)

이렇듯 자신의 계획과 달리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채 “But I′m no criminal, don′t have it in me; frightful to myself instead” (H, p. 41).라고 말하고 있다.

Herzog는 자신이 폭력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기질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아버지의 총을 훔친 것은 오이디푸스적인 반항이지만, 자신의 자동차가 트럭에 의해 충돌하도록 하고 총을 불법 소지한 죄로 체포된 것은 그 자신이 받는 처벌이자 아버지에 대한 복수인 셈이다. 그가 꾸민 자작극은 자기 아버지의 그것과 마찬가지

---

22) Keith M.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p. 151 참조.

로 자멸적인 것이다. 그의 어린 딸 June이 그가 사고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가족의 비극의 또 다른 한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Herzog가 이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다시 한 번 자신의 부모님의 상실을 비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는 자신을 부모님과 동일시하는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그의 분노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인 반항을 재현한다. 그가 총을 가지고 소동을 부리는 것은 카타르시스적인 동시에 자책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를 마비시키고 그가 한탄할 수 없게 막았던 정신적인 번민과 분노, 죄책감을 잠시 동안 덜어준다. 그의 태도는 다급하고 해괴하지만 그가 부분적으로 자신의 살인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의 분노와 죄책감이 합쳐지면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Herzog의 비통함의 위기가 정체성의 위기이며 오이디푸스적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건들은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Sissler부부를 방문할 때 보였던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공포감을 느끼고 도주하려는 것은 그 부부를 그의 상징적인 부모로 연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다. Sissler부부는 그를 환영하며 마음의 평화를 준다. Libbie는 그를 사랑하며, 이들은 한 때 연인관계를 고려해 보았지만 유지시키지는 않았었다. 그녀의 남편은 Herzog의 영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지혜롭고 친절한 남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rzog는 자신이 그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방해하는 제3자라고 느낀다. 그가 Libbie에게 끌리는 그의 생각 때문에 그들의 집에 사는 것은 그가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Gersbach와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 상황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오이디푸스적 설정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러므로 그는 당황하면서 도망쳐버린다.

Herzog가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을 동일시 한 것 외에도 그가 어린 딸 June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극단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계기가 된다. 그가 Madeleine과 Gersbach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을 정신이상 아동범죄자에게서 지켜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했다. 사실 그는 한 남자로서가 아니라 폭행을 당한 어린아이로써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는 아동 범죄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다. Madeleine과 Herzog, 재판 중인 여성은 모두 유년실절에 성희롱을 당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Herzog의 복수심을 촉발시킨 그 재판은 한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살해한 그녀의 애인에 관한 것이다. 그 부부와 아이는 확연히

Madeleine, Gersbach 그리고 June 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성 구두의 뒷굽으로 성기 부분을 구타당한 그 소년은 Herzog를 상징하기도 한다.

Herzog는 자신의 유아적 성향을 회고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혼의 근본적인 고통은 피학대 아동 증후군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파혼을 당한 사람과 피학대 아동 증후군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Shechner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23] 그는, 결혼 생활이 안 좋아지거나 사랑의 다른 부분들이 희미해지거나 반대로 변할 때마저 애착이 남아있는 것 같은 감정이다. 그 배우자들은 감정적인 면에서 폭행당한 아이들과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간파하고 있다.[24] 이 말은, 이혼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고 복수를 갈망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의존적이고 애착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남편을 계속해서 열망하고 있다는 것에 괴로워하는 한 이혼녀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폭행을 당한 아이들 중 부모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은 아이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유일한 부모이기 때문이며. 그녀는 실제로 이러한 감정을 많이 느꼈음을 실토하고 있다.

이 소설의 말미에서 Herzog는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로 분노와 복수에 대한 갈망을 부분적인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그는 자신을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둘째로 그는 결국 Madeleine을 다시 만나고 그녀를 이겼다고 느낀다. 그가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가지고 다니다가 체포됐다는 사실은 그녀를 두렵게 하는 것 같다! 세 번째 그는 Madeleine과 Gersbach을 자신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가소로운 존재로 봄으로써 그들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무의식 속에 내재한 비통의 과정이 끝나는 것은 격분이 노출되거나 대상이 무가치한 것으로 버려진 후에 가능하다는 프로이트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Herzog는 프로이트의 두 가지 심리적인 행위를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부분에서 Herzog는 그가 휴양할 수 있도록 정신병원에 보내주겠다는 형의 제안을 거절하고 시골에 있는 옛날 집에서 홀로 지낸다. 그의 일시적인 고립은 그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 Ramona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저녁식사를

---

23) Mark Shechner, *After the Revolution: Studies in the Contemporary Jewish-American Imagin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7), p. 144 참조.

제안하지만 함께 보내지는 않는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에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박관념의 상태에서 편지 쓰기와 망상적 사색을 멈추었으며 자신의 집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는 Madeleine에게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느낀 것이다. 기쁨! 드디어 그의 종살이는 끝이 났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소름 끼치는 중압감에서 그의 심장은 해방되었다.

> He was surprised to feel such contentment ... contentment? Whom was he kidding, this was joy! For perhaps the first time he felt what it was to be free from Madeleine. Joy! His servitude was ended, and his heart released from its grisly heaviness encrustation. Her absence no more than her absence itself, was simply sweetness and lightness of spirit. (p. 381)

긍정적인 암시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암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 너무나 마음이 산란한 나머지 Herzog는 날짜에 대한 개념을 놓쳐버리고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의 형 Will이 방문했을 때 Herzog는 일주일도 못되어 체중이 10파운드나 줄어있다. 그는 동요하고 극도로 흥분한 것 같아 보인다. 이러한 상항을 Weiss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Sometimes loss of attachment gives rise not to separation distress, but rather to its opposite, euphoria . . . . Instead of needing the other, the individual feels that he or she needs only the self. Futhermore, removal of the other has made available to the self new opportunities for gratification and self-realization. This euphoria does not seem to be an integrated or lasting aspect of the separated individual's personality. . . most who experienced euphoria report that it proved fragile. When I have talked with individuals describing themselves as euphoric, it has seemed to me that they often displayed tension and anxiety without being aware of it.[25)]

---

25) Weiss,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5), pp. 53-55.

그러므로 Herzog의 기쁨은 미미하고 일시적인 것일지 모른다. 어쩌면 그의 우울증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조울증의 증세인지도 모른다. 또한 그의 죄책감과 마조히즘의 주기가 다시 돌아온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경과민이고 그 순간에 더 고립된 상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이 여전히 불안과 무질서의 늪에 빠져있음을 느낀다.

> I fall upon the thorns of life, I bleed. And then? I fall upon the thorns of life, I bleed. And what next? I get laid, I take a short holiday, but very soon after I fall upon those same thorns with gratification in pain, or suffering in joy-who knows what the mixture is! (p. 254)

그러나 Herzog가 비록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비통의 회복은 성격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에 신경과민환자였던 사람들은 회복 후에도 신경과민 환자로 남아있다. 그러나 Herzog는 그 위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왜 자신이 그러한 고동치는 심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하는지 때로는 푸념도 하지만 운명적으로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맞서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균형은 불안정성에서 온다고 독백하듯 투덜거린다 (H. p. 330). 두 번째 Bellow의 어떠한 소설에서도 기적적인 치유는 없다. 그의 주인공들은 모두 배움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 결국 성격의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닌 단순한 마음의 변화를 겪는다. 그들은 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소설 끝부분에서 그들은 종종 Herzog처럼 일시적으로 행복한 분위기에 젖는다. Joseph, Augie, Henderson과 Corde 등이 그러하다.

Herzog는 여전히 신경과민이라는 느낌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그는 비통의 위기에서 살아남아서 무언가 교훈을 얻었다. Parkes는 비통의 고통은 사랑의 기쁨과 같은 삶의 일부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랑을 위해 극복해야할 대가이며 서약의 값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26] Herzog가 깊이 비탄에 잠길 수 있는 능력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 그와 우리 모두를 보다 더 진전된 인간으로 만들어 갈

---

26) Parkes, *Bereavement,* pp. 5-6 참조.

수 있는 힘을 증거한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Herzog*라는 소설은 아내와 친구의 배반으로 방황했던 한 남자의 1주간에 걸쳐 전개되는 황급한 행동과 갈등, 그리고 격정의 파고 속에 독자를 몰아넣어 조바심과 전율의 소용돌이에서 숨을 고를 수 없는 긴장감이 넘쳐나는 스토리가 아닌가 한다. 이 소설은 Bellow의 예술과 문학사상을 집약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지지 않을 것 같다. 형이상학적인 사유에 몰두한 *Danglng Man*, 스스로 어두운 상상력으로 피학성을 깊게 하는 *The Victim*, 버림받고 배반당한 붕괴직전의 *Seize the Day*의 주인공은, 여기에서 가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파산한 반광란 상태의 학자 Herzog의 성격과 행동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절망적인 붕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기하려는 강인한 집념은 *The Adventure of Augie March*와 *Henderson the Rain King*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비유태인은 Catholic의 Monsignor Hilton과 정신과 의사인 Dr. Edvig뿐이다. 일본 여성 Sono Oguki는 Wanda, Zinka와 함께 Herzog가 국제적으로 사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 주며, 프랑스 회화도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Herzog가 참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유년 시절부터 함께 자라난 유태인에 한정되어 있다. 유태인 집안끼리의 세계에서는 마음 놓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교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의 변호사와 Herzog의 대화는 분방하고 저속하며 위트의 신속성은 분명히 미국적인 유우머와는 이질적인 것이다. Madeleine과 Gersbach는 Herzog에게 악의 주역들이지만, Herzog는 메타포의 되풀이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생생하게 표출함으로서 미국 고유의 준엄한 도덕적 가치 기준과는 다른 척도로 조명되고 있다.

주인공 Moses의 개념은 미국 소설의 전통에서 벗어난 “shlemiel”이다. Herzog도 Gersbach 못지않은 호색가이며 악한이다. 가장 전형적인 유태인 냄새를 풍기는 것은 부친 Herzog이다. 그는 그 자신이 반성하고 있듯이 집안사람에 대한 애착과 의타심이 의외로 강하여 막내아들다운 면이 엿보인다. 이러한 호색한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자체가 철저한 개인주의와 도덕적 권위주의의 에토스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한다. 주인공 Herzog는 자기의 지적 의식으로 인간관계의 실패를 극복하고, 부정과 기만에 대해서도 사색적 지성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애쓰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Herzog*는 20세기 미국사회의 민족적 복수 문화 의식의 보편화라고 하는 현상을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깊게 표현한 소설이 아닌가 한다.

참 고 문 헌

Bellow, Saul. *Herzog.* New York: Viking, 1964.

Bohannon, Paul. “The Six Stations of Divorce", *Divorce and After: An Analysis of the Emotional and Social Problems of Divorce,* ed. Paul Bohannon,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1.

Clayton, John J. *Saul Bellow: In Defence of Man.* 2nd ed.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79.

Epstein, Joseph. "Saul Bellow of Chicago". *New York Times Book Review,* May 9th, 1971.

Fisher, Bruce. *When Your Relationship Ends.* Bouldel, Co: Family Relations Learning Center, 1984.

Freud, Sigmund.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trans, and ed.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1957.

Harper, Gordon Lloyd. "Saul Bellow; An Interview", *Herzog.* ed. Irving Howe, New York: Viking, 1976.

Jacobson, Gerald F. *The Multiple Crises of Marital Separation and Divorce.* New York: Grune and Stratton, 1983.

Krantzler, Mel. *Creative Divorce: A New Opportunity for Personal Growth,.* New York: Evans, 1974.

Myers, Michael. *Men and Divorce.* New York: Guilford, 1989.

Opdahl, Keith. M. *The Novels of Saul Bellow.* Univ.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1978

Parkes, Colin Murray. *Bereavement: Studies of Grief in Adult Lif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2.

Rahv, Philip. "Bellow The Brain King,” *The Sunday Herald Tribune*, Sept 20, 1964.

Vaughan, Diane. *Uncoupling: Turning Points in Intimate Relationship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6.

Weiss, Robert S. *The Emotional Impact of Marital Sepa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1976.

_____.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5.

Wilson, Jonathan. *Herzog: The Limits of Ideas.* Boston: Twayne, 1990.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58033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 임혜영 한문 : 林惠英 영문: LIM HYE-YOUNG				
주소	광주시 서구 농성2동 674-8번지				
연락처	062-368-8440 E-MAIL: hye8440@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Herzog의 성격에 관한 오이디푸스적 접근** 영문: **A Study on Oedipal Approach to Herzog's Personalities in *Herzog***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월 일

저작자: 임 혜 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